

어명소 2차관, GTX-A 공사 현황 및 수해 대책 점검

- 23일 한강 하저 TBM 터널 공사현장 찾아 철저한 수해 방지대책 등 주문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3일 오후 2시 GTX-A노선 한강 하저 TBM* 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현황 및 우기 대비 대책 등을 점검하였다.

* (구간) 성동구 옥수동 ~ 강남구 압구정동 일원 / (형식) 1,314m × 2열 한강하부 터널

- 어 차관은 GTX-A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면서, “국민들께서 GTX-A 개통에 따른 효과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- 또한, GTX-A 전사업 구간의 여름철 수해 방지 대책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및 시공사업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, “GTX-A는 도심도 지하에서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만큼, 침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우기 대비가 필요하다”며,

- “최근 빈발하는 국지성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수시설 등을 준비할 것”을 지시하며, “특히, 한강 하부를 통과하는 현장에서는 한강의 수위 상승 등도 염두에 두고 수해 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·시행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- 이어, 어 차관은 한강 하저 60m에서 TBM 공법으로 터널을 건설하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.

-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“혹서기가 다가온 만큼, 근로자들께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휴게 시간 및 공간 확보 등 안전·보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6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